

월간 증현

'80 11월호



감사절을 맞는 자세

금년에도 평안한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하여 흔히 1623년 9월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지만 이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이나 1789년에 11월 26일을 정식으로 미국의 국경일로 지킬 것을 선포한 일은 오늘의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년에 세 번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다.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찌니라”(출 23:14)

첫째는 유월절인데 이는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신 16:1-8) 둘째는 오순절인데 이는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과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세째는 초막절인데,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두어 들인 추수를 감사하며 또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한 주간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첫째로 초막 안에 거하면서 지난 날에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켜야 한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먼저 한 일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지난 날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켰

던 것이다. (레 23-40)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바로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초막에 거하는 (벧전 1:24)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구속의 은혜와 광야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먹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먼저 지난 날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

둘째로 오늘에 추수한 정성된 예물을 제단에 바치면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쳤다. (민 29:12-38)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열매를 정성되어 바치면서 구속과 생활과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켰다. (레 23:40; 신 16:16, 17)

예수님께서 마 6:21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다.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더우기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인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추수감사절 제단 위에 오늘에 추수된 아름다운 열매로 정성되게 바치게 될 것이다.

세째로 내일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추수한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여 새해를 맞이할 때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수장절(출 23:16 이하)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때는 전도서를 읽었는데 그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 끝날에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있어지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세론적 교훈이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재림 후에 있어지는 신천지의 기쁨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일에 있을 새해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오늘에 받은 축복인 정성된 예물(물질)을 제단에 바치며 더욱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 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 권 제 10 호
통권 82호

— 11 월 호 차 례 —

월간 충현

권 두 언	감사절을 맞는 자세	주 간 · 2
이달의말씀	세례요한의 중심	김창인 · 4
지 상 특강	복음성가-무엇이 문제인가	이성재 · 6
평가와제언	학습·세례·입교·개종문답을 마치고	김원남 · 11

* 감사절 특집 *

●왜 감사해야 하나	박동실 · 12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유국남 · 13
●언제 감사해야 하나	최봉호 · 14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이양무 · 15
만 난 사 람	위영환장로 · 편집실 · 16
편집실칼럼	삶의 우선권 · 이형수 · 17
찬송가감상	공중나는 새를 보라 · 김하진 · 17
책 소 개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나 · 유희섭 · 18
책 정 보	9월에 들어온 도서 · 도서실 · 18
특 별 게 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 번역/오태용 · 19
칼 빈 주 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① · 김하진 · 24
교 계 소 식	월간교계뉴스 · 편집실 · 27
선 교 월 보	9월중 선교지소식·기도제목 · 해외복음선교회 · 28
구 역 소 식	9월중 새교우·결혼소식 · 편집실 · 30
권 찰 수 첩	가정심방에 대한 재인식 (2) · 김원남 · 31
답 한 다	승리 생활의 비결은 · 김창근 · 35
교 회 소 식	· 편집부 · 32
11 월 행 사	· 편집부 · 34
편 집 후 기	· 편집부 · 34
표 지 설 명 /	

여름 냉해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금년도 우리에게
결실을 주셨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앞에 감사로 드리며.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심

〈요 3:22~30〉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인격자인 세례 요한의 일생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다 음의 몇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의 종류

(1)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허랑방탕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위해 무엇을 해 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랑곳없이 제 잘난 멋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본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

사람 가운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에 눈이 뒤집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뒤틀린 삶을 살며 남을 속이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심지어는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사람도 있으며 성도들이 거룩하게 바치는 헌금까지 중간에서 도적질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3) 자손을 위해 사는 사람

좀 훌륭한 분은 자손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잡수시지도 못하고 입으시지도 못하면서 아들 딸 대학 공부시켜 사람 노릇을 하게 하여야지 하시며 희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의 열국 가운데 당당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고 나와 관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특히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도 그같은 인생이 되도록 결심하고 힘쓰도록 합시다.

2.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활동

(1)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늙도록 아들도 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늘 기도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스가랴가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아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흔히 귀하게 자식을 얻게 되면 그 자식이 버릇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분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없고 교만한 사람으로 자라기가 쉬운데 요한이라는 젊은이는 그와는 정 반대였습니다. 겸손하고 침착하며 지혜롭고 믿음이 돈독한 청년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요한은 일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요한이 좀 나이가 든 다음에 광야로 나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기서 일할 준비를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운 곳을 싫어합니다. 광야와 같은 호젓한 곳에서 바람소리, 새소리로 음악삼고 꽃과 풀로 친구삼고, 시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분이 정말 같으나 실상은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이 이같이 광야에 나가 훈련을 받음으로 인생은 외로울 때가 많으며 외로움을 이기는 자가 일군이 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광야는 피로운 곳입니다.

광야에 홀로 나가 사는 생활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비를 맞거나 토굴 속에서 비를 피해야 되는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셋째,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이 날뛰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무서워하고 그 다른 무엇이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의 준비가 필요했던 까닭입니다.

(3) 세례 요한의 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백년이 지나도록 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암흑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온 백성은 존경하며 그를 메시아인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육개월이 지났을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을 받은 길잡이라고 했지? 신부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므로 신랑인 그 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며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그의 소망이었고 속 중심이었으며 그의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4) 세례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행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격있고 올바른 일군으로 일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진실을 말한 댓가로 죽음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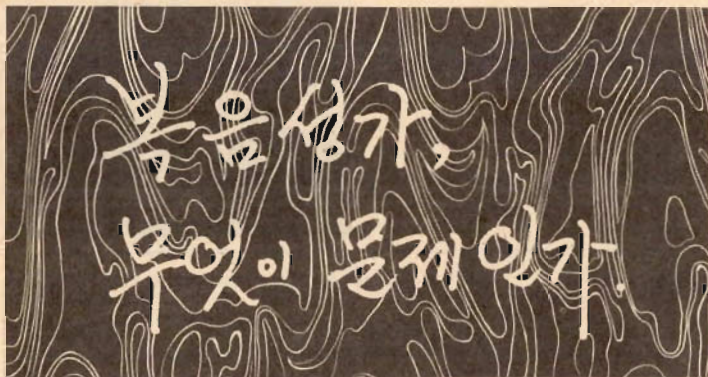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산 날은 짧았으나 그는 가장 큰 일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의 중심을 가진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인간 최고의 성공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세례 요한의 생을 배우며 그대로 일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두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 재 장로
(새한교회시무)

오늘날 교회안에서 복음성가(Gospel Song)를 사용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복음성가의 사용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선되어야 할 것이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는 또한 예배문제를 알아보아야 될 줄로 알아 먼저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1. 예배

(1) 예배(Worship)의 구성요소

예배란 언필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드리다'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첫째의 것이 기도이고, 둘째가 찬송, 세째가 헌신입니다.

●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시간에 하게 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감증이나, 어떤 호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제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시간의 기도는 10분, 20분씩 절제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단 2.3분이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앞에서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향기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 찬 송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시에 드리는 것이 이 찬송인데 찬송이라는 말은 에베소 5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화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개념과 내 이웃과 나와의 화목의 개념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살펴보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나의 신앙고백적인 찬송이라든지 또는 '아무나 와도 종소' 등 이러한 형태의 찬송은 엄격히 말해서 예배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반드시 예배시간에 불리워져야 할 바른 찬송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3장을 부르면 '예배시간이 끝나는 끝종을 치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의 찬송을 예배 시작용 찬송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찬송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되어 있는 찬송이고 1장은 인간의 노래로서 부족하니까 저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와서 노래하자는 뜻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찬송들을 우리는 얼마나 구별없이 무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로 삼아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표현"이 찬송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은혜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시간에도 찬송을 한 장으로는 마음이 안 풀려 석 장, 네 장을 마구 부르는 경우 등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 헌 신

헌신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교육이나 전도사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는 진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헌금을 바칠 때에도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앞에 예배 드릴 때 언제나 향기와 진실로서 일관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장로가 대표하여 기도를 하시게 되고,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 모든 모임으로 찬송을 드리게 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을 드리는 세 가지의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 가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곧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예배의 이유

이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 집단체로 드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혼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론적 문제와 인간의 원죄론적 회개의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째 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노?'라고 묻고 있고 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아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칼빈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이 먹든지 마시든지는 육체적인 생명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든지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모든 활동의 범주 전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히브리의 시인 다윗은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개념은 "구원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살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인 이성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온전한 하나님앞에 드러지는 향내나는 제사의 한 방법, 곧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3) 찬송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시편 135편을 통해서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3절)

둘째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3절)

세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찬송해야 합니다(4절)

네째는 하나님은 관대하시며 높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5절)

다섯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6-11절)

여섯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복을 주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 해야 합니다(12절)

일곱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13절)

이와같이 찬송의 이유를 볼 때 우리는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권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앞에 드러지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2. 찬 송

(1) 찬송의 역사

이처럼 찬송의 의미를 바로하고 우리는 찬송의 유래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수님 시대—시편 113-118편

우리가 사적이나 고대 음악사를 통해서 살펴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시편 113-118 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유월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더불어 찬미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에 오르시면서도 이 시편 113-118 편을 불렀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 볼 때 그 당시만해도 시편 외에는 찬송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초대 교회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서신서들을 살펴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찬송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 등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 방향으로 이해되어 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시'는 시편에 나오는 시만을 의미합니다. '찬미'는 그 당시 시편에 들어 있지 않은 노래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신령한 노래'는 유대인이나 이방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지어서 부를 시를 말한다 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설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선생의 글의 내용으로 보아 순수성에서 어느 정도 확충된 의미가 있겠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발전, 성장의 과정에서 살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는 2세기에 가서는 지중해 연안의 구라파와 아프리카를 복음화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교회, 터키를 중심으로 아시아교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교회가 전부 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왕성해 나갔지만 거기에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모든 예배의식이 그 나라 민족과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 4세기—니케아 종교회의

A.D 343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 사도신경과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무려 4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보면 '찬송은 반드시 남자만 하되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자만이 부르고 찬송은 시편의 2권부터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회를 중심으로 개선하여 결정하였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히브리의 음율이 잘 맞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 6세기—그레고리안 성가

이것은 6세기에 와서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각 나라의 음계를 수집해서 자기 나라의 음계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것이 소위 그레고리아 성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가사는 반드시 로마어를 쓸도록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카톨릭에서 오늘날까지 물론 그 시대에는 이 그레고리안 찬트와 히브리 음악을 겸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히브리 음악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회람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퍼져 소위 러시아 음악으로 발전하여 나가 오늘날 러시아 음악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고 서로마의 그레고리안 찬트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음악의 2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전되어 가면서 간혹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지어 부르고 했습니다.

● 16세기—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은 찬송에도 하나의 큰 개혁을 가져 왔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사상은 '만인 제사장'주의와 연결되어 모든 사람이 다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설교도 할 수 있으며 의식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에도 개혁이 일어나 특수층과 남자만 부르던 찬송을 남녀 구별없이 모두가 부를 수 있는 화중 찬송으로 바꾸어지고 이것의 모범을 보이게 위해 마르틴 루터가 직접 곡을 쓰고 시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입니다. 그후로 여기 저기서 찬송곡과 가사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저은 찬송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칼빈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편 2권 이후의 것만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화란교회는 주로 영국에서 제네바로 건너 갔던 청교도들이 다시 화란에 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재배교회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서양 음악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 폴란드, 유럽 전역에 선교의 물결에 의해 찬송가들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찬송을 부르는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칼빈과 같이 시편외에는 찬송이 아니라면서 배제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시로서 쓰기도 하고 곡을 짓기도 했습니다.

● 19세기—영국

그러던 중 복음이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 갔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기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가사를 지어 리듬을 붙인 것이 Gospel Song—소위 복음성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성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사용할 때 곡이 없었기에 소위 잉글랜드나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민요를 모아 가사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찬송가 640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또한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등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권하기 위한 하나의 음악의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도 이웃에게 복음을 권하고 나의 신앙고백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 가면서 이 복음성가도 따라 갔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었기에 복음성가의 위치도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찬송가의 순수성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흐려지기 시작하여 미국으로 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3. 복음성가

(1) 찬송가와 복음성가와의 관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도 이 복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가 합동, 개편, 새찬송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찬송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새찬송가의 곡 수가 672곡인데 한국의 교회들이 실제로 부르는 곡은 100여곡이 넘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작성해 오도록 했는데 주일, 주일저녁, 수요일저녁에 부른 찬송이 100곡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에 부르는 찬송도 1년 내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700여곡씩 만들어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이 새찬송가 중에는 복음성이 70%를, 그리고 찬송가가 아닌 합창곡이 10%, 결국 순수한 찬송가는 20%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가제회자나 목회자들이 마구 불러냅니다. 더욱 모순되는 것은 찬송가에 있는 복음성은 부르면서 학생들이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하고 부르면 그것은 복음성이니까 안된다고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빈들에 마른 풀 같이' 다 곡 같은 복음성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송가 중에 있는 20%의 찬송을 골라서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시에 부를 수 있는 20%의 찬송이라도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1977년에 조사해 보니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2장의 '보좌에 앉으신'은 좋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교회 안에서 찬송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가 많이 섞여 있으니 찬송가 편집을 다시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가 1.2권이 나오고 또 찬송가 중에는 성가로 부르는 곡과, 송영곡과, 복음성가를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통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 중복된 것만을 통일하여 700여곡 정도로 하자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모순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안된다면 총현교회와 같은 개교회에서라도 실시하여 보급해야 할 줄로 압니다.

(2) 한국에서의 복음성가의 역사

그러면 한국교회의 찬송가 이 복음성가가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이 복음에 한창 불 붙기 시작한 때가 1850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도 19세기 초엽에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건너 온 영국의 투자자들이 일리노이즈, 시카고를 중심으로 공장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청소년들이 몰려 들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가 공장지대로 발전한 지 3년만에 전 세계적으로 닥친 경제공황이 시카고를 강타하면서 10만의 청소년들이 직장을 잃고 약탈과 절도와 음행으로 밤을 지새워 시카고를 암흑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 고아원이 240곳이 생겼으니 소동과 고모라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를 건지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목회자가 아닌 변호사, 대학교수, 실업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니고는 구할 길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실의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를 초청해서 밴조를 치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며 박수를 치고 하니 저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를 범죄의 소굴에서 구원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 대중집회 전도자로 나선 사람이 무디입니다. 1873년 영국에서 부흥집회를 마치고 돌아 오던 무디는 생키라는 유명한 독창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설교하고 생키가 노래하고 하면

서 복음송이 붙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사도 짓고 곡도 붙이고 하여 「신령한 노래(Gospel Song)」라고 제목을 붙여 팔아서 돈도 벌고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에 건너 온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한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반응이 없었니까 전도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노래 즉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를 가르쳤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는 1915년 이후에는 내세지향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 '피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땅 위에 소망 없되 주님나라 소망있도다' 등입니다. 이런 복음송을 통해 민족혼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며 회개하는 영혼을 구원하였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제네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는 문화권에서 복음이 들어왔다면 오늘날 이와같이 복음송에 대한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 미국, 캐나다 문화권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주로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당시 미국의 복음 전달 방법이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한 대중집회를 기폭제로 한 것이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부흥회가 많이 열리고 부흥회를 하면서 찬송을 해야 되니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고하면서 체질화 된 것입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책임은 한국교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3) 복음성가의 특징 및 수용자세

복음성가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노래이기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들은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는 간절한 울부짖음이며 좀 더 나아가서는 구속함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감격된 기쁨의 노래로써 엮어낸 간증입니다.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며 가사는 확실하다기 보다는 이야기를 읊음으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논할 여지가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대중이 순식간에 흥분할 수 있는 요소의 것과 센티멘탈하며 화성은 원래 유희할 때 부르는 노래로 쓰여진 것입니다. 곡조에 있어서는 펠로디 흐름이 대부분 상승적이며 리듬은 동적이고 도약이 심하며 대부분 4분음표, 8분음표로써 붓점이 많고 박자는 거의가 4/4박자이며 곡의 시작이 대부분 약박자로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많이 부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가사 내용의 대부분이 내세지향적이고 간증이나 권고형태이며 주관적이며 성령중심적이고 무엇을 바라며 얻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아 신학적인 내용이나 배경이란 것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는 미국에서 발달되고 유행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풍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성가는 전도에는 적합하나 예배에는 불경건하므로 절대적으로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성가에 대한 유행과 그 위치 등을 생각해 보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진정한 찬송에 대한 평가 등을 내려야 할 줄 압니다.

첫째, 현재의 찬송가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노래로 여기고 복음성가가 나의 신앙의 고백적으로 불러져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안에서 집회나 예배전에 부를 때에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준비 찬송을 한다고 하며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며 마치 무슨 준비운동하는 식의 찬송 부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경건하고 엄숙하고 뿐만 아니라 신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예배시간에 찬송가는 무시하고 복음성가와 율동으로 하는 경우는 속히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나 성가회자가 찬송가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흥집회때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며 빨리 불러서 사람을 흥분시키게 되는데 이런 병폐는 빨리 없애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인신앙의 상태라고 보는데 찬송에 대한 문제도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 복음성가는 복음성가로서 전도나 특별한 집회시 사용하고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찬미로서, 예배의 한 형태로서 주님 앞에 향기가 나도록 드러지는 분별을 갖는 교회로 재정립함으로써 이제 이후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 원고는 지난 9월 교육위원회 위원 특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위원장)



지난 추계성례식중 학습 · 세례 · 입교 · 개종문답을 통하여 느껴졌던 점이 한두가지 있어 피차간에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쓴다.

문답을 해보니 대체적으로 지적 이해의 부족과 이에서 오는 확신의 부족이 많았다. 마치 어느 시험관 앞에서 요행을 바라는 응시자의 태도랄까?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한 사람 또는 세계 요한이라고 한다고 대답했다. 주님은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바른 신앙고백을 했으니 복되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온다. (마16:13이하)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은 ①“주”-육신을 쓰고 오신 인간 예수 ②“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인생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③“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삼위 하나님중에 한 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 이는 어느모로 보나 정확하고 확실한 신앙고백이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에 한 절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믿어 구원 얻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고 물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고 말았고 몇 사람이 정확에 가까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요즈음 주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상황하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치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보여 준다. 범죄한 인생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겠다는 계획과 작정을 말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즉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축사에서 탄생하시어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범죄한 인생의 삶의 고초를 당하시며 3년 공생애를 통해 갓은 밀시, 조롱, 학대, 핍박을 받으시고 마침내 인생이 최악의 벌로 죽는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말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시며 공중에 십자가로 다시 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 이하)

이것이 복음 진리이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만일 흔히 대답하는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만을 믿습니다」하면서 이 복음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우리도 죽고 말 것이며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성립되며 영원한 안식세계에서의 복락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철두철미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재림까지, 아니 하나님의 택정에서 영생복락까지를 정확히 알고 의심없이 믿는 확신 가운데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박 동 실 강도사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신·구약성경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때로는 물질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를 더 강조하고 있다.

감사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불 때 큰 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레위 사람을 세워(대하 5:13, 7:6) 감사하게 했고 그 일은 포로 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감사란 예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를 제의시킬 수가 없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물을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시 69:30, 31) 생각했다.

구약성경에서는 감사를 하는 경우가 신약성경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극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사악한 자를 겨꾸려드리고 하나님만 믿는 자를 건져주시고 높이시는 여호와와의 정의로운 심판에서(시 52:9, 75:1) 감사했으며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나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데서(시 7:17, 28:7)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신약성경에서의 감사는 더욱 강한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감사의 모범을 보이셨다(마 11:25). 바울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 여겼다(롬 1:18).

오늘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나.

첫째,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미를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에 부족 할 정

● 왜 감사해야 하나?

의무·권능·인도

복음전도로 인해

도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최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와 비교한다면 비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신앙의 인식에서 의무라기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산천초목, 사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중에서도 결실의 계절에 더욱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주의 인도를 깨달을 때 더욱 깊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삶의 가치가 되며(빌 1:21) 바울처럼 슬퍼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고(고후 6:10)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주의 인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살전 5:18) 생활을 해야 되며 갖가지 고난에 있어서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며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다.

네째, 주의 복음 전한다는 사실 생각할 때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사업번창도 모두 감사해야 될 이유이다. 그러나 전에 폭행차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감사는 신자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할 일인 것이다.



●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장차 주실 복을

유 국 남 전도사

(선교부 부지도)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면 제 아무리 완악한 불신 자라 할찌라도 떨어지는 낙엽을 곁에 두고 무언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누구인가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인다. 성도된 우리는 이 계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일 것이다.

특히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몇절을 보며 생각해보기로 한다.

앞에서 유월절에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한 칠칠절에는 현재 시작된 누리는 바 복을 나누며 감사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에는 과거와 현재에 받은 복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었으니 이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산물과 네 손을 번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먼저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즐거워 할찌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언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는 분임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다. 쫓기고 번거로운 마음으로 참된 감사가 되어질 리가 없다. 또한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오히려 공허감이나 자만이 올 염려도 있다. 바로 그런 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가장 알맞는 때가 또한 아니겠는가!

또한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듯이 여기서도 이웃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주신다.

첫째로 너와 네 자녀와 노비라고 지적하신다.

우리는 흔히 내 가정이라고 하고 내 가족이라고 한

때에 내 집에 거하는 또 다른 식구들을 잊을 때가 많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 봉사 해주는 식구를 혹시나 멸시하고 천대하지나 않는 지 두려운다. 유월절이나 칠칠절 규례에서 보듯이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고 바로 내가 함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에 가장 괴로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너도 애급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둘째로 레위인을 말씀하셨다.

레위인이란 잘 아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하신 사람들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만을 본것으로 얻은 사람들이다. 하는 일로 보자면 오늘날 주의 종들에 해당하는 말이 될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장로 곧 오늘날의 목사님을 잘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괴로울 때에 모신다면 즐거울 때에 함께 연락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세째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고 분부하신다.

참으로 쉬운 듯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 한다. 그들이 불신자라면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진정한 안식과 온전한 상급이 그 너머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같이 보인다. 아직 주시지도 않은 복을 갖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니, 그러나 참다운 믿음과 신뢰가 여기있고 온전한 감사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먼저 그러나 지적하신 사람들과 지정하신 모든 방법을 따라 특별히 장래에 받을 복을 믿고 영육간에 또한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영화를 주게 돌려 보자.



최 봉 호 강도사

(성경학원·초등부 지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 5:20)

그 생활에 찬미와 감사로 젖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평범한 교인들에 비교하면 5월의 따사로운 아침과 1월의 얼어붙은 겨울날과 비할 수 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 찬미하는 사람을 보면 믿지 않는 냉담한 사람들이라도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늘 감사와 찬미의 생활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일상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업이 잘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재난에서 구출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초대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함도 감사해야 하며(행 5:42; 마 5:10~12), 바울과 같이 수없는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을찌라도 찬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 16:25)

「주 자비하신 중에서」(합동 찬송가 317장)를 쓴 「조지 메테슨」은 갖가지 고난을 겪어 나온 맹인 설교자였다.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신 가시를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읍니다. 달콤한 향기의 장미는 감사하며 받았어도 찌르는 가시에는 감사하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받을 상만 바라보았을 뿐 지금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내 기쁨으로 삼지 못했읍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가시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주 안에서 무지개로 영롱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멘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은 어려움을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

● 언제 감사해야 하나?

항상 감사하자

다”고 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실때 눈 앞에 다가온 고난을 보시면서도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마 26:27) 하나님을 경배하셨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는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골 사람이 처음으로 「뉴욕」 구경을 왔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타임스」광장 변화가에 와서 내렸다. 그는 내리면서 차장에게, “차장님 내가 이제 찾아가려는 곳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물었다. 그때에 차장이 대답하기를, “손님, 나는 윗 세상 일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땅 밑의 길만 알 뿐입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신자들 중에 지하철 차장처럼 어두운 아랫 세상에 파묻혀서 감사의 생활과는 먼 거리에서 앞에 보이는 것만을 찾느라 곤비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지하의 단계다.

둘째로는 지상의 단계가 있다. 번덕이 심한 세상에서 잘 될때는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때는 낙심하는 신자들이다.

세째로는 천상의 단계가 있다. 이 세상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은 왔다가 지나가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님은 변치 않으시니 “말 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고후 9:15)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신자이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경이 악하고 곤란한 일들이 겹칠 때에라도 주안에서 항상 감사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자, 결코 쉽지 않겠지만,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가능하다.



●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계속적인 감사로 온 생애를

이 양 우 전도사
(유년부 지도)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와 국가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화목과 사랑과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친백성인 (벰전 2 : 9) 성도들의 생활의 특징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또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사건만은 아니다. (삼상 7 : 3 - 12)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는 신앙」을 말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과 지옥의 그 무서운 유흥과 형벌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시켜주신 그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어찌 우리의 중심에서 감사가 썩어지지 않겠는가? (롬 8 : 1 - 2)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전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어찌 감격의 눈물이 없을 것인가? (요 1 : 12)

이 구원의 감격속에 항상 살아가는 성도는 감사생활이 강물의 흐름같이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자.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성령님과 동거동락하며 사는 하늘의 백성이다. (요 14 : 17)

오늘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병들고 낙망과 피로움과 꾀박속에 있을찌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롬 8 : 28)을 믿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너희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 기

뻘 찬송하라.」(전 7 : 14)는 말씀대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 18 : 11)를 앙망함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독수리같은 새힘을 얻자.(사 40 : 31), 범사에 감사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낙망과 실망에서 주안에 있는 새 소망으로, 꾀박이 변하여 축복의 손길이 되는 주안에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사도 바울은 밝히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살전 5 : 18)고 하였으니 이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온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전 생애를 바쳐 감사의 생활을 넘치게 하자.

셋째, 주님을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살자.

찬송은 장망성(세상)을 떠나 천성(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교인들의 승리의 개신가(노래)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죄없이 무서운 매를 맞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었지만, 밤중에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회개하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다. (행 16 : 15 - 34)

또 유다왕 「여호사밧」때에 암몬, 모압, 에돔의 세 나라 연합군이 「유대」를 침공하여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았을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를 앞세워 여호와와 자비하심을 크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대하 20 : 1 - 23)

우리 성도들은 험한 죄악 세상살, 나그네 인생길 활동중에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마다 오늘날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감사 찬탄만아, 마귀의 유흥과 모든 시험과 환란이 물러가게 하고 승리의 개신가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2년간 각 분야에서 충성

화평 단결해야

□... 그동안 우리 교회의 시작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충성하여 오시던 위영환장로님 ...□
 □... 이 지난 10월28일 미국으로 떠나셨다. 편집실에서는 떠나시는 위장로님을 만나 잠시 이 ...□
 □... 얘기를 나누며 온 교우앞에 소개한다(편집실) ...□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1957년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수복하면서 부터지요. 우리 딸들은 그전 1954년부터 통일교회(충현교회 전신)에 나오기 시작했지요. 아마 그때 학생회에서 서로 일하고 하던 사람들이 한 경일·오진국장로님들이 있지요. 1959년에는 서리집사 임명을 받고 제직회 서기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장로 피택을 받고 1961년 4월15일에 장로 안수를 받았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지는 24년째가 되는 셈입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공적임무를 맡으신 것이 1959년 서리집사, 그 이듬해에 제직회 서기에서 시작하여 1960년에는 장로 피택, 안수등을 거치면서 교회의 중요한 부서를 맡아 오시며 교회 발전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해 오신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나 장로님은 그동안 60년·70년에 당회 서기는 각 3년, 6년동안 역임하신 것을 비롯하여 주일학교 고등부 부장, 남전도회회장, 재정위원장, 건축위원장, 동산관리위원장, 재단법인 충현동산 전무이사, 제직회 서무부장, 월간충현 편집위원장 등으로서 수고해 오셨고 특히 해회복음선교회는 초창기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부회장, 1975년~1979년까지 회장을 역임해 오시며 선교관계 일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계시고 선교의 일을 위해 애써 오셨다. 이와같은 어려운 일을 감당해 오시면서도 시종여일하게 일을 해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이라는 하나님 앞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일을 하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장로님께서 거의 초창기부터 또 시무 장로로 20여년 가까이 수고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느끼신 우리 교회의 장점이랄까 그런 점을 좀 말씀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전통이라면 무엇을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단합해서 나온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파벌, 파쟁으로 많은 문제를 겪어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열이 없이 잘 단결해서 내려 온 것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현재, 또한 앞으로도 점점 이단사설이 더욱 날뛰는 이런 세대에 어떤 다른 일보다 서로 단합하고 조심하며 진리를 파수해 나가는 전통을 계속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이렇게 서로 잘 단결해서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길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5대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전건축문제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당대에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물론 10년 전에 땅을 샀을 때 성전건축을 했다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았겠지만 그동안의 사정을 잘 살펴보면 지금의 이 상태는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젠 성전건축을 빨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

교회에서는 시무장로로 19
년 7개월간 수고해오신 위
장로님에게 지난 10월 26일
저녁에 배시 공로패를 드렸
다.



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으며 천국 일군을 키우자고 정하고 노력해 오는데 물론 교회내·외적으로 볼 때 좀 기복은 있지만 앞으로 새 성전으로 나가게 되면 훨씬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선교·전도면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기여한 면이 많아요. 또한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완화된 것으로 더욱 발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저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앞길은 썩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성전으로의 이전 등을 앞에 놓고 또 80년도를 맞으며 새로운 계획과 꿈들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런 때 우리 교인들이나 교회가 어떤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신적인 면에서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평한 가운데 단합해야 되겠고, 특히 제직이나 직분자들은 출선하여 희생하는 가운데 힘을 합칠 수 있는 정신자세가 되어야겠고 또한 실제적으로 행할 면에서는 앞으로 새성전으로 나가서 일들이 많이 생길 터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앞날을 내다 보는 가운데 준비해야 겠다고 생각되고 각 분야에서 보다 연구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면 개발할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미국에 가시게 된 동기와 앞으로 미국에 가시면 어떻게 지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저는 1남 4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두 딸의 가정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

래서 아들은 미국 동부의 피츠버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곳 한인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해 전부터 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또 여기서 할 일도 있고 해서 그동안 보류하다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게 되면 저도 여러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당장에도 가서 할 일이 많습니 다. 우선 아들의 사업의 일을 도와 주고, 그들의 가정도 돌아 보아 주어야겠고 또한 그곳 한인 교회에서 봉사할 생각도 있고 또한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모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평신도 선교사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 한인교포사회에서 전도도 할 생각을 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동안 모 석유회사에서 임원으로 21년 6개월간을 일하셨다. 사회에서 일하실 때도 장로님께서는 「근면·성실·건덕(建德)」을 삶의 지표로 삼고 일해 오셨다. 교회내·외에서 장로님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오신 것이다. 사회가 점점 혼탁해져 가는 이때에 주위에 본 받을 만한 분이 또 떠나 가심이 무척 섭섭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 가시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본을 끼치실 것을 생각해 본다.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중심 생각은 「충성」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그동안 제대로 충성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공사(公私) 간에 사랑을 많이 받은 일은 잊을 때야 잊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사모 남숙덕권사님과 함께 떠나셨다.

대답·정리 / 이형수집사

삶의 우선권

이 형 수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실패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그의 삶을 그릇된 기초위에 놓고 그 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우선권과 하나님의 우선권을 바꿔 놓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내·외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런 우선권의 문제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뜻과 계획대로 마구 해 치우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이 실패하고 있는 영역을 놓고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위해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행사의 의미도 모르며 행사에 분주하고 있거나 않은지, 큰 일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작은 요구에 불순종하고 있거나 않은지, 성령의 은사는 여기 저기 쫓아다니며 구하고 성령의 열매에는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자,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의 감정 이전에 성경의 사실이 우선임을, 머리에만 채워 넣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우선권은 전도 이전에 우리의 성결을, 숫자보다는 내용을, 양보다는 질을, 성공 이전에 성실함을, 다양한 방법 이전에 순수한 동기를, 치밀한 계획 이전에 믿을 수 있는 진밀한 협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우선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우선권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말 앞에 마차를 놓고 말로 부터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우선권을 하나님의 우선권 앞에 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임을 잊지 말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 571 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으며
세상 주관하신 천부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 위하여 근심할 것 무에나

바야흐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되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엔 기쁨이 없는 것 같으니. 웬 일일까? 금년에는 자원의 부족과 함께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모든 인류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불러 보라! 오히려 기쁨이 넘칠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감사가 넘칠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걱정과 근심은 금물이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의 조건도 뒤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걱정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찌라
이는 외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 쓸것을 아시네 (3절)

3절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라. 무슨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만약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염려가 따른다면 불신자가 가지는 태도가 아닐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지는 자세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작시되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수가 없고 작곡자 역시 알 수가 없다. 다만 에멜라(Emmela)라는 사람에 의하여 편곡된 사실만 밝히고 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자.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다.

금년에도 풍성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9 월중 들어온 도서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성서백과대사전(B~L) : 성서교재간행사편 902p. 1980.

2. 성경

- 1) 켈센성경연구차트 : 켈센, 어빙 L. 저. 구영재역. 아가페출판사, 1980.

3. 조직신학

- 1) 바른신학 : 라보도, 김달생공저. 대한예수교 장로회신학교, 566p. 1980.

II. 기증도서

- 1) 이사야 53장 : 영, 에드워드 제이저. 윤영탁역. 성광문화사. 123p. 1980(윤영탁목사 기증)
- 2) 20세기 작곡기법 : Leon Dallin저. 이귀자역. 수문당, 268p. 1980. <이귀자교수 기증>
- 3) 가난한 마음을 위한 기도 : 정원채저. 평민사, 219p. 1980. (임은경선생 기증)
- 4) 국가발전과 어린이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발행. 383p. 1976.
- 5) 꾸짖지 않는 교육 : 시모다저. 박중신역. 문화각, 254p. 1967.
- 6) 신교육 과정의 연구 : 홍웅선저. 연세대학교출판부, 290p. 1973.
- 7) 교육심리학 : 박준희저. 교육출판사, 382p. 1973.
- 8) 현대 교육과정 : 강신웅저. 법문사, 305p. 1975.
- 9) 교육평가 : 방순동저. 법문사, 362p. 1973.
- 10) 한국 근대 교육사 1885~1945 : 손인수저. 연세대학교출판부, 342p. 1971.
- 11) 아동발달 : 나병술저. 대한출판사. 314p. 1969. <이상 8권 정홍식집사 기증>

R. B. 카이퍼 지음 이 장 우 옮김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 했는가?

성광문화사, 366 페이지, 3,000 원

이 책은 화란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며 개혁파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R. B. Kuiper 교수의 「The Glorious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들의 골자를 “교회의 기원”에서부터 “하늘나라 임재”에 이르기 까지 53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예로 들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 카이퍼 교수는 현대교회의 양상을 세속적이고 기형적인 발전으로 보고 지나친 팽창주의를 지양하며 성서적인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까지나 영광된 계시와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보편적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 교회는 진정 부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있고,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커녕 오욕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회속의 인간적인 관념, 제도, 착색된 문화 또는 낡은 전통의식, 편벽된 조직이나 교권, 그리고 성경을 악용하는 독선주의자들 또는 균형을 잃고 있는 진보나 보수주의자들의 오류를 에리하게 파헤치며 교회의 성서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 책은 처음 발행된 당시 미국교회를 바로 잡아주고 전 세계 교회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 선교 100주년 되는 한국에도 칼빈의 교회관과 일맥상통하는 이 책을 목회자, 제직들, 평신도 모두 읽으므로 커다란 자극을 받아 성서적 교회관이 수립되어지고 성서적 개혁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으면 한다.

이 책은 정통주의 교회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도록 성서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고 본다.

유희섭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존 칼빈 지음

오 태 용 옮김

□ 제5장 □ 현세의 올바른 사용

I. 극단을 피하자.

1.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가르침과 동시에 이 세상의 축복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도 아울러 충분히 교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 법칙을 논할 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역시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는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데 도움되는 것들까지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용을 지켜야 한다.

2.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에다 규정을 해 놓으셨으니, 곧 그의 종들에게 있어 현세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길과 같다고 가르치신다.

비록 이 세상이 여관방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축복을 이용해야 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는 여행 길에 지체를 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역시 같은 마음으로 물건을 사는 자들은 파는 자 같이 하라는 권면은 까닭이 없는게 아니다.

3. 그러나 이 문제는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용납되지 않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근거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 그래야 양 극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밖의 점에서는 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극도의 엄격함으로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무절제와 사치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모든 속박을 벗어 던지게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유해한 악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에서 그들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만을 채택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절대 필요한 것인 한에서만 세속적인 축복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권고는 그 의도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리만큼 엄격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과오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범위 안에다 사람들을 제한 시킴으로써 그들은 가능한 모든 것에서 절제하기를 피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버터를 바르지 않은 빵과 깨끗한 물 외에는 어떤 것도 먹고 마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

또 테베의 크라테스(Crates of Thebes) 처럼 훨씬 더 엄격한 것을 추구한 이들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귀중품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 자신이 그것으로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그것을 바다 속에 던져 버렸다고 한다.

4. 이와 반대로 근래에는 무절제하게 외형적인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으며,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자유는 어떠한 제한 사항으

제 5 장 현세의 올바른 사용

- I. 극단을 피하자.
- II. 세상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III. 진정한 감사는 남용을 억제하게 해 줄 것이다.
- IV. 절제하며 살자.
- V. 궁핍한 중에도 인내하고 만족하자.
- VI. 신의 소명에 충실하라.

이 책은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환영을 받되 특히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가치를 수행하기를 원했던 인물들의 환영을 받아왔다…… 강력하게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이 책이야말로 경건의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이 책에서 내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신적이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진수를 표현하였다고 보겠다.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강화하였다.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1979년 신학지남 여름호의 서평란에서 신윤복교수의 평 중에서)

로도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점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것의 사용 문제는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각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한다고 그들은 떠들어댄다.

5.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가혹하고 엄격한 규칙으로 속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니 가능치도 못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몇가지 일반 원칙을 성경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좇아 행해야 한다. (고전 7:30, 31.)

II. 세상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째 원칙은 하나님의 선물은 창조주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바로 그 목적에 부합된다면 잘못 사용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만들어 놓으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충실히 지킬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좀더 적절한 규칙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2. 예를 들자면 왜 하나님께서 각가지 종류의 식물(食物)을 지으셨는지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복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예절과 체면까지도 유의하셨다.

풀잎과 나무와 실과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용하다는 점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우아한 외형과 유쾌한 냄새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 하셨던 것이다.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색케하는 기름”등등 신의 축복을 열거하지 않았을 것이

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도처에서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심지어 사물의 고유한 성질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

만일 주님께서 꽃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을 팔리게 하고, 유쾌한 향기에 우리의 후각을 빼앗기게 하셨다면 그때 그 꽃 향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죄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색깔을 만드신 것도 이것이 저것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금속이나 보석보다 더 귀중하게 해주는 아름다움을 금과 은, 상아와 대리석에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한 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상의 것들에게 합당한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은 아니잖는가? (시 104:15)

III. 진정한 감사는 남용을 억제하게 해 줄 것이다.

1.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창조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저 비인간적 철학을 버리자.

그러한 악의적 관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당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해서 목석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받아 들이기가 불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호하게 억제되지 아니하면 모든 경계선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방탕에는 그 옹호자가 있게 마련이다. 즉 자유를 구실로 예외 없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2.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싶거든 모든 만물은 우리로 그 조물주를 알고 인정하게 하려

는 목적에서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함으로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둔해져서 경건이나 우리의 직업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진미 또는 술에 빠진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될까?

만일 우리 몸을 무절제 함으로써 가장 부도덕한 정욕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을 음란으로 물들게하여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할 정도로 된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사치스런 복장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경멸한다면 어디서 의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정한 관계를 준비한다면 어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겠는가?

만일 우리의 생각이 의상의 화려한 아름다움에 몰입한다면 어디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나겠는가?

3.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쾌락을 추구하므로써 그들의 마음이 그것의 노예로 되고 말기 때문이다.

대리석과 금과 그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조상(彫像)과 같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말하자면 금속으로 온 몸을 감싸 화려한 우상을 닮기 시작한다.

고가의 풍미와 달콤한 향기는 사람들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의 욕구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타 다른 모든 자연물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신의 축복을 남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감사의 원리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이 원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바울의 법칙을 확인해 준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의 타고난 육적 욕망을 멋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절제와 중용의 모든 경계를 넘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롬 13:14)

IV. 절제하며 살자.

1. 그러나 현세에서 눈을 돌려 저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는 것보다 (감사에의) 길로 더 확실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일반적 원리가 나온다.

첫째 원리는 바울의 교훈에 의하면 “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

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이다.

둘째 원리는 가난을 말없이 인내하여 참고 풍부한 절제하며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명하시는 주님께서는 전혀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지나친 쾌락, 야심, 교만 및 가구와 주택과 의상 문제에서 까다롭게 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낮추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경건을 파괴할 모든 걱정과 감정까지도 금하신다.

몸의 외양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만 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보이지 못한다 하는 점은 그 옛날 카토(Cato)가 벌써 관찰하였던 바이었다.

또한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즉 육의 몸에 정신을 파는 사람들은 대체로 영혼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3. 그러므로 외형적인 것들에 있어서 신자의 자유가 가혹하고 엄격한 규칙들로 제한을 받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방종해서는 안된다는 이 법의 지배는 꼭 받아야 한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분의 불필요한 것은 모두 피하고, 사치를 나타내는 모든 헛된 과시를 멀리 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결연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생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거침이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고전 7:29~31)

V. 궁핍한 중에도 인내하고 만족하자.

1. 또 다른 원리는 가난한 자들은 궁핍한 중에도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부에 대한 욕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제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주님의 학교에서 적잖은 진보를 하였으며, 이러한 진보를 이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를 별로 보이지 못하였다.

2. 그 이유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에는 거의 모든 다른 악덕들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대체로 안락한 형편이 될 때엔 정반대의 악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겸손한 옷차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옷을 입으면 자랑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번번찮은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수성찬을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으며, 혹 먹을 기회가 생기면 절제를 잃어버리기까지 할 것이다.

궁핍과 겸손을 참는 사이 침착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예를 얻게 된다 해도 교만과 오만함을 능히 경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2) 고 한 사도 바울의 모본을 좇아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성경은 또한 이 세상 것은 그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 3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부정의 교훈을 말할 때 이미 언급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에탁금과 같이 우리의 관리에 위탁된 것이요, 따라서 장차 언젠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관리할 때는 마치 “내가 맡은 청지기 사무를 설명하여야”는 경계의 말씀을 늘 귀에 듣는 것처럼 해야 한다.

4. 또한 누가 다음과 같은 보고를 요구하는지 명심하자.

자제, 절제, 겸약, 겸양을 그 무엇보다도 높이 권고하시는 이가 그분이다.

과도함, 교만, 화려, 헛된 과시를 몹시 싫어하시는 이가 그분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강령 받지 않으면 그의 축복을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실 이가 그분이다.

우리가 정숙하고 청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하게 하는 모든 쾌락을 그의 입으로 친히 정죄하시는 이가 그분이다. (빌 4:12; 눅 16:2).

VI. 신의 소명에 충실하라.

1.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우리를 각자는 우리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명하시고 계신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차서, 이리저리 휩쓸리기가 쉬우며,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 야심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대담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 전반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생활 영역에서 해야 할 특수한 임무를 정해 주셨다.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러한 생활 영역을 주님께서 직업 또는 신의 부르심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의 생활 영역은 일생을 불확실한 가운데 방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지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것으로 평가되는

데, 인간 이성이나 철학의 판단과는 판이하게 되는 수가 종종 있다.

2. 철학자들 가운데서라도 자기 나라를 압제에서 구해 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웅적 행위는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 심판자의 음성은 압제자를 죽이는 사인(私人)을 정죄한다.

그 예들을 일일이 드는 것이 계획에 들어 있지 않으나, 모든 공민적 입장에서 올바른 행실의 원리와 기초가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자기의 소명을 등한시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의 직무에서 절대로 바른 길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때때로 그는 어떤 칭찬 받을만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 인생의 여러 부문에서 일관성이 없게 될 것이다.

3. 그러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소명을 항상 유의하고 있으면 우리의 현재 생활은 통제가 가장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자기의 소명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을 감히 떠맡겠다는 대담한 태도에 유혹받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자기가 알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곳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의 염려와 수고와 노력과 다른 짐들에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안내자인 줄을 알게 된다.

그때 행정장관은 훨씬 더 자발적인 태도로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때 한 가족의 아버지는 더욱 용기있게 자기의 의무를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보다 많은 인내를 나타낼 것이며, 인생 길을 가는 동안 각가지 어려움과 걱정근심과 불행과 불안을 극복할 것이다. 그러한 때에 그는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 어깨에 지워주신 그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적 소명에 종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경할 만하지 않고 대단히 중요하지도 않는 천하고 지저분한 직업이란 없다고 하는 이런 독특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Coram Deo! - 하나님 앞에서!) (창 1:28; 골 1:1이하)

— 끝 —

칼빈의 생애와 사상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1. 칼빈의 생애

중세기 기독교회의 권위 아래 있던 유럽은 이태리를 중심으로 문예부흥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혁명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졌고 인간을 재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때, 즉 15세기 후반에 걸쳐서 전 인류와 교회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Luther 1483)라든가, 멜랑톤(Melanchton, 1497), 에라스무스(D. Erasmus, 1466), 츠빙글리(H. Zwiugli, 1484)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따라 한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햇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칼빈(Calvin)이다.

칼빈은 본래 프랑스 북쪽 피카르디(Picardy) 지방에 있는 노논(Noyon)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제랄·코반(Gerard Cauvin)의 네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정숙하고도 겸손한 여성이었다. 칼빈에게는 본래 다섯 형제가 있었으나 세 형은 일찍이 다 죽고 동생인 안트와느를 낳은 지 얼마 안되어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죽고 말았다. 이때 칼빈은 세 살 난 어린이였다. 그렇게 됨으로 아버지 제랄은 재혼하게 되었으며 그 여자의 몸에서 두 딸을 얻게 되었다. 칼빈의 아버지는 한 교구의 주교인 분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생활에 어려움은 맛보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상류 계급에 속하는 자녀들과 접촉하며 자랄 수 있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과도 사귀게 되었다. 칼빈은 주교의 자녀들과 같이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으며 그들이 다니던 카펠대학(College de Capetles)에도 다니게 되었다.

칼빈은 몸이 좀 약한 편이기는 했으나 그는 정확한 이해력과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코반에서 칼빈으로 바뀐 것은 1523년 파리에 있는 말슈대학에 입학하면서 부터다. 그 당시 입학 원서를 제출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라틴어화하여 칼

비누스(Calvinus)라 하였고 그후 다시 칼빈(Calvin)이라고 고치게 되었다. 그는 말슈대학에서 라틴어를 배우다가 수 개월후 친구들과 같이 몬태규대학(College de Montaigu)으로 전학을 했으며 그는 여기서 많은 양의 책을 읽게 되었고 라틴어도 통달했다. 그후 칼빈은 다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올레안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칼빈은 올레안대학에서 루터의 개혁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은 볼마르(Melchior Wolmar)에게 회랍어를 배우게 됨으로 후에 그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1531년 5월 26일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고향인 노논에 내려가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 왕실대학(College of Royal Cefcures)에서 회랍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칼빈은 그후 1532년 2월에 올레안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얻었고 지금까지 공부한 첫 열매로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이때 칼빈의 나이 불과 23세의 젊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칼빈이 계속 학구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 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1529년 4 월에는 슈파이엘(Speyer) 제국회의를 열어 로마 교회의 부당성을 설교하고 개혁파 제후(諸侯)가 결속하여 항의문을 제출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칼빈은 다시 1533년 10월에 파리로 가게 되었고 그해 11월 1일날에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쿨이 파리대학에 학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때 쿨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주장과 같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교회에 대한 폭탄 선언이었다. 이로 인하여 쿨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얼마후 바젤(Basel)로 추방 당하게 되었다. 이때 칼빈도 쿨의 친구이며 그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함께 추방당하게 되었다. 칼빈은 12월 10일 깊고 어두운 겨울 밤 추위에 떨면서 파리를 탈출하여 고향인 노논까지

칼빈은 그의 유언대로 묘비를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가졌던 철저한 신본주의의 모습을 발견케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걸어 갔다. 그러나 칼빈에게는 기다리는 안식처가 없었다. 다행히 전부터 친교를 맺어 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안졸렘 성당 수석 신부로 있던 틸레(Louis du Tillet)라는 분이였다. 칼빈은 틸레의 호의로 그의 집에 피난의 여장을 풀게 되었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훌륭한 도서관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칼빈은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도 오래 계속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과 틸레는 망명의 길을 떠나 바젤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쿨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 머물면서 조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친구 포르쥬(Forge)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탈고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칼빈의 나이 27세 되던 해인 1536년 3월에 12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개혁주의의 초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불후의 작품이 되었다.

그 후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던 화렐(William Farel)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간곡한 간청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칼빈은 화렐의 제자 비레(Viret)와 같이 셋이서 서로 손을 잡고 제네바 시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칼빈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1537년 2월 18일에 「제네바 신조」를 공포하여 신앙의 내용과 교회생활의 훈련을 위한 자세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서 4월 27일에는 21개조로 된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서」를 출판하였다.

칼빈은 1538년 9월 5일 다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멜랑톤(Phillip Melancthon)을 만났다. 여기서 칼빈은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며 「기독교 강요」제 2 판을 출판하였다.

칼빈이 32세 되던 해인 1540년 8월에 친구 부첼의

권고로 이델렛 드 뷔르(Idelette de Bure)라는 두남매가 있는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델렛트는 건강은 좋지 못했으나 아름다운 용모와 내성적인 성품을 가진 훌륭한 여성으로서 죽을 때까지 칼빈을 위하여 정성을 다했다. 칼빈이 결혼한 지 한 달 후에는 제네바시의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제네바에 가는 것을 주저하면서 시편 주석 서문과 성찬론을 썼으며 1541년 1월에는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그해 9월 1일 칼빈은 제네바시의 강청에 의하여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성베드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여기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헌법」을 발표하고 교회조직을 초대교회의 조직에 따라 목사하고 교사, 장로, 집사(엡 4:11 참조)등 네 직분을 두었다. 이에따라 신정 정치제도가 태어났고 이같은 조직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기본이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교회 규칙이 선포되자 제네바에는 칼빈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생활형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시련을 준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 나서 죽게 된 일이다. 1542년 7월 28일날 아들을 얻는 기쁨이 있었으나 이 기쁨은 두 주간도 못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1549년 3월 29일에는 사랑하는 아내이며 반려자이던 이델렛트마저 잃고 말았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경 주석에 정열을 쏟아 1550년 12월 25일에는 이사야 주석을 출판하였고 1551년 1월에는 공동서신을 출판하였다. 한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와 논쟁하여 승리한 것은 개혁운동의 갈 길을 좌우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와같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던 칼빈은 외부의 적들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당시 칼빈에게 있어서는 두 종류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의 적이 로마교회였고, 둘째의 적은 자유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도시,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Deo gloria) 돌리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특별히 칼빈이 1556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제네바 시를 위하여 노력한 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생활의 질서와 기율을 지킬 것과 ② 제네바 시내에 좋은 교육 기관을 세우는 것과 ③ 여러 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민족과 국경을 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날 제네바 대학의 전신인 Ceges Academiae Genevensis를 162명의 학생으로 1559년 6월 2일에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55세라는 나이를 일기로 지상의 삶을 마치고 말았다.

칼빈은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친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

“존경하는 여러분!

나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친절하게 함께 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만 왕의 왕이시요 만 주의 주이십니다.”

칼빈은 그의 유언대로 묘비를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가졌던 철저한 신 본주의의 모습을 발견케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2. 칼빈의 사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중심사상이 예정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가졌던 중심사상이라 하겠다. 물론 예정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기초 위에 칼빈의 5대 교리가 서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제일 먼저 그리고 중심에 두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아니고 불신 세계 각 분야 즉 자연계,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 전반의 문화 형성권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잡고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 논할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으며 똑같이 힘써야 합니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25년전 오늘의 충현교회당을 지을때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음과 힘을 합하였다.〉

제15회 총회 성료

총회장 이영수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총회가 지난 9월 25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전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새 총회장에 이영수목사를 선출하고, 64회 총회에서 이탈해 나간 일부 형제를 맞아들이기 위해 1개월간 기한부로 정회를 선포했다. 속회 총회는 11월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팔호안은 노회 및 소속교회) △총회장 이영수(대전·대전중앙), △부총회장 최성원(동전주·전주제일), △서기 홍태우(인천·제물포), △부서기 김동권(진주·진주), △회록서기 김원범(목포·시온), △회록부서기 이기훈(황동·성은), △회계 김기정(수도·충현) △부회계 김무옥(대구·동부)

통합·고신·기장측도 총회

예장 고신측을 비롯하여 통합·기장측도 각기 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한국 개신교 백주년 기념 사업관 건립과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고신측 총회장 김주오 목사, △통합측 총회장 박치순 목사, △기장측 총회장 강신정 목사.

총회사무실 기구 개편

총회본부는 제 65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사무실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 조직된 부서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선교국, 교육국인데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사무국장 박성만목사, △교육국장 오석봉목사, △선교국장 장익목사.

필리핀 선교사에
박기호목사 선임

총회선교부(부장 안중섭 목사)는 지난 10월 20일 총회사무실에서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개최, 박기호목사(남서울노회 산하 대방교회)를 필리핀 선교사로 인준했다.

박기호 선교사는 대방교회(임병준목사 시무)에서 선교훈련이 끝나는데로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선교사 강승삼목사의 파송예배가 지난 10월 26일 대구 서현교회당에서 성대히 드려졌다.

신학교 난립에 공동
대처기로

한국기독교 대책협의회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5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신학대학장 및 교장간담회를 열고 신학교 난립 현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당면한 신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학교육 정상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신학대학 학장과 교장, 교단장들 23인이 참석한 동 모임은 김지길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발언자들의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것들은 신학교가 많다는 것은 한국교회 장래에 큰 소망이며,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과, 그러나 신학교의 난립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며 교회와 당국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의견이 집약되었다.

이날 모임에서 구성된 신학교육 정상화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김지길, 지원상, 박치순, 신진목(대책협의회), 이종성, 문상희, 김용옥(신학대학협), 박대선, 한석지, 민영환, 한영철(교단인준 신학교).

채기은목사 교계언론
퇴임

26년간 교계언론에서 수고했던 전 기독교신문 사장 채기은목사가(73세) 임기만료로 지난 9월말 퇴임했다.

채목사는 1954년 기독교보 편집국장으로서 교계 언론계에 투신하여 한국기독교시보 발행인, 크리스찬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등을 역임했었다.

전도관 박교주 이상송배

한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사이미 기독교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진목)는 지난 18일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가 지난 8월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최근의 언동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도관은 기독교의 분파적인 이단이 아니고 박태선 개인송배 집단으로 변천되었다고 밝혔다.

전도관에서 25년간 목사로 일해온 이하규씨가 최근 동 집단을 나와 전도관의 비위사실을 밝히는 청원내용과 각종 유인물,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표한 동 성명에는 「지난 8월 17일 소사제 1 신앙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예수는 대역죄인이므로 예수의 초상화와 십자가를 전면 철거하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 박교주가 「신구약 성경의 98%가 거짓말이라고 선언」하여 스스로 비기독교 집단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하고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원죄를 유전죄로 계승받은 죄인이며」 「아브라함을 비롯 성경상의 위인중 대부분이 지옥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 서 만수선교사와 가족 3명

1. 선교관 수리공사 완료

선교관 증축 및 수리공사를 4 개월 걸쳐 준공하였다.

2. 후반기 오지순회

9월15일~22일까지 중부자바 및 동부자바를 순회하며 사역자를 위한 특별집회와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15일, 16일, 20일, 21일에는 중부자바의 쏘로에서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집회 및 개별상담을 하였고, 「누수한」교회당과 「벤엘」교회당에서 부흥회를 개최하여 매일밤 1,000명~1,500명이 참석하였다.

17일~19일에는 동부자바 바두에서 선교사 협의회에 참석하여 연합회 구성을 위한 발제 강연을 하였다.

3. 새로운 개척 후보지

후반기 순회중 중부자바의 「꺼둥레조」지역을 새개척지로 결정하고, 예배당 부지를 확정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물색중에 있다. 기도바랍니다.

4. 오지사역 현황

파송 번호	지 역	사 역 자	결 신 자
1	뻬메안	수꼬요	장년 3 명
2	골로	양민	장년 1 명
3	틀로고모즈	스와르소	장년 5 명
6	롬봉마스	요육	장년 1 명
7	뿌차왕이	스와디	장년 1 명
9	두며한	엘리오	장년 3 명
10	박갈란	수꼬요	장년 3 명
11	두꾸팔릴	무칸도	장년 1 명
13	뿌충	요나단	장년 2 명
14	시리아리아	땀뿌불론	장년 1 명
15	수디모로	수꼬요	장년 1 명
18	숨버레조	뿌리바디	장2, 아동3명
19	우넝	양민	아동 3 명

* 기도 제목 *

1. 오지사역자들의 결실을 위하여
2. 비자 체류 연장 수속을 위하여
3. 서 선교사 내외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홍콩 - 홍 종만선교사와 가족 6명

1. 내방인사

초등학교 송목사, 이성배목사, 영안교회 박종만 목사등 방문함.

2. 마카오교회 염영택목사와 다녀옴

3. 학습 세례식

9월 6일 후기 성례식 거행(아세 2 명, 세례 10명, 학습 15명) 14일 성찬식

4. 홍콩한인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건물구입하기로 결정함.

5. 부인전도회에서 한국농구선수들에게 김치를 만들어 보내어 격려함.

6. 중공방문하는 일본성도에게 성경20권, 교리서 8 권, 미화 400불 보냄.

7. 9월30일 중국선교사를 초청하여 중공선교에 대하여 협의함.

8. 미국 나성동양선교회의 초청으로 10월 14일 향미하여 27일 일시 귀국예정.

기도제목

1. 홍콩한인교회를 위하여
2. 홍콩에서의 중공선교를 위하여
3. 중공에 흩어져 있는 한인성도들을 위하여

애굽 - 이준교, 김신숙선교사와 가족 6명

1. 카이로한인교회, 헬리오 폴리스 가정교회, 동산 살람천장 예배 계속 인도중.

2.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교장 페키 사다카 목사와 만나 신학교문제와 애굽선교에 대해 의견을 나눔.

3. 카이로시 헬리아·폴리스에 있는 이집트 현지인 비사이·사이드목사와 만나 애굽교회와 신앙노선에 관해 협의함.

기도제목

1. 아메리칸대학에서 수업중인 이선교사에게 건강과 지혜가 임하도록.
2. 두 선교사의 가정을 위하여
3.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독 - 육 호기선교사외 가족 3명

1. 내방인사

- 최동진목사와 한명수목사가 각각 내독하여 만남.
2. 9월23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비스바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안에서 친교하였고, 교회건축과 법인인가 신청에 관해 의논함.
 3. 9월26일 비스바덴한인교회를 정식으로 법인인가신청을 독일 법원에 신청함.

기도제목

1. 세 교회의 부흥과 건축을 위하여
2. 육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호주 - 김태현선교사외 가족 4명

1. 새 결신자

포타니트 라스트호의 1등 기관사로서 작업중 등하체 부분에 큰 화상을 입고 입원중에 있었던 장낙영씨를 방문하여 위로예배를 드리고 약 4 주후에 건강을 회복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를 드렸다.

뇌수술로 3회에 걸쳐 수술 받았던 박영희씨가 약 10개월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주안에서 결신하기로 함. 이상의 두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김태현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2.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 백 성룡선교사외 가족 4명

1.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교회에 계속 의욕적으로 시무중에 계심.
2. 10월16일~20일까지 당회장 김창인 목사께서 내방하여 부흥회 인도하심.

기도제목

1. 한인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2. 현지인 선교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본 - 유병세평신도선교사외 가족 4명

1. 이권사 부인성경반 인도
2. 새벽기도회에 말씀증거
3. 교우들에게 점심초대하여 주안에서 교제함.
4. 한국 의사가족 7명에게 전도함.
5. 교회에서 설교함.
6. 전도열매인 송전간호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함.

기도제목

1. 선교사님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2. 선교의 열매신자들이 교회 출석토록

서독 - 박용삼평신도선교사외 가족 2명

1. 박사논문 마지막장과 결론부분을 위해 계속 연구중
2. 전화설치함: 독일 튀빙겐 07071-6521

기도제목

1. 논문 과정이 잘 마무리 되도록

인도 - 엘리아 겔간선교사

1. 라다크 「수루」골짜기 선교답사차 15일간 산악여행을 함.
2. 9월24일~10월24일까지 남인도의 케랄라 지역의 15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복음증거함.

기도제목

1. 겔간선교사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1. 10월10일 임지로 출국. 가는 길에 아르헨티나를 들러 백목사를 만날 예정.

기도제목

1. 김선교사의 여정을 위하여
2. 현지교회에서의 목회를 위하여

9 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돈암구역	이행자	성북구 동선 2가 322 4/3
창신1구역	박운자	종로구 창신3동 창신APT 20동104호
변동구역	강선숙	도봉구 번2동 148-300
월곡구역	황선녀	성북구 하월곡 1동 81-46 21/4
창동구역	정도영	도봉구 쌍문 3동 122-32 6/3
성북구역	심혜숙	성북구 성북동 122-10
창동구역	변동호	도봉구 쌍문 3동 122-32 6/3
우이1구역	윤현숙	도봉구 우이동 178-2
종암2구역	서명자	성북구 종암동 산2 종암APT 다동409호
송인2구역	김양민	종로구 송인동 56-106 6/8

● 2 지구

중화2구역	신윤희	동대문구 상봉동 89-2 1/5
암사구역	서옥진	강동구 암사동 신창 APT 7동 506호
흥인2구역	김순옥	중구 황학동 2277 삼일APT, 21동607호
신당3구역	조호만	중구 신당동 303번지 13/6
둔촌구역	김형희	강동구 성내동 동양연립주택D동3호
정충1구역	전화동	중구 장충 1가 56-56 3/2
태능구역	이규식	경기도 미금읍 호평리 205
왕십리구역	오영수	성동구 하왕 2리 1046-35 29/2
암사구역	김숙자	강동구 암사동 466-65 2/1
송정구역	최용호	성동구 송정동 39-10 4/4
도선구역	주점순	성동구 하왕십리 1동 500-8 8/2
신당3구역	한덕석	중구 신당 1동 241-78 10/3
망우구역	송기문	동대문구 신내동 493-113 21/2
길동구역	함봉연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용수리
광희1구역	박세정	중구 광희 2가 230 11/7
망우구역	조현자	동대문구 망우 2동 529-25 29/2
면목1구역	사공경옥	동대문구 면목 1동 101-26 6/5
쌍림1구역	모현순	중구 장충 2가 24-27 6/1
쌍림1구역	원경희	중구 장충 2가 24-27 6/1
중곡1구역	신순란	성동구 중곡동 175-14 14/5
길동구역	원연일	강동구 길동 127 흥통연립주택 가동202호

● 3 지구

정충2구역	정은숙	중구 장충동 2가 193-94
-------	-----	------------------

도곡2구역	이상환	강남구 대치 2동 은마APT 12동 804호
시영2구역	김윤희	강동구 잠실 4동 시영APT 161-207호
정충2구역	김현철	강동구 잠실 4동 진주APT 8동802호
잠실1구역	이양숙	강동구 주공 APT 27동 302호
삼성구역	정명자	강남구 삼성동 AID APT 18동209호
도곡3구역	김옥임	강남구 역삼동 39-8 10/5
금호구역	진금례	성동구 금호 2가 1048 23/2
선정1구역	홍현영	강남구 역삼동 480-10 1/1
한남구역	김영목	용산구 한남 2동 726-211 8/2
강남3구역	정정희	강남구 서초동 로얄연립주택 2동201호
이태원구역	전병복	용산구 이태원동 225-33 10/3
한남구역	김문순	용산구 한남동 754-10 17/3
강남4구역	정지연	강남구 반포동 50-58 1/2
잠실2구역	김명희	강동구 잠실 1동 주공APT 109동501호
잠실3구역	김 훈	강동구 잠실고충APT 525동 507호
강남3구역	최남철	강남구 서초동 금산더연립주택
선정1구역	김기철	강남구 논현동 7-220
중곡2구역	최선옥	성동구 중곡 3동 172-82

● 4 지구

필동2구역	김길순	중구 충무로 5가 88-5
필동2구역	정연봉	중구 필동 3가 1 6/1
상도2구역	김순임	동작구 본동9 본동 APT 6동301호
반포2구역	송균호	강남구 반포동 주공 2단지 APT 221-502
필동2구역	정종순	중구 필동 3가 10-5 6/2
대방구역	김일수	관악구 봉천 1동 657-53 11/1
상도1구역	정현자	관악구 상도 2동 29-75
마포구역	송진광	마포구 아현동 414-11 37/2
회현구역	최태현	중구 남대문 5가 200 5/3
후암구역	정창원	용산구 갈월동 34-2 4/4
인현1구역	박광자	중구 충무 4가 15-12
용산구역	유기영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APT 12동802호
인현3구역	김영기	중구 인현 2가 188-2
방배1구역	고미라	관악구 방배 2동 오성주택 3동 201호
방배1구역	정진금	관악구 방배 2동 오성주택 3동 201호
사당2구역	임순배	강남구 방배동 2193 17/6
필동4구역	안남임	중구 필동 106-8 3/2
여의2구역	박광식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APT 1동104호
서강구역	손덕만	마포구 하수동 74-68 6/3

● 5 지구

신촌구역	최희정	서대문구 북아현동 237-12 4/8
충무1구역	손영희	중구 오장동 5가 101-1
충무구역	이명애	중구 오장동 11-3
가회구역	임옥희	종로구 압금동 113
응암1구역	유양옥	은평구 응암동 321-43 29/4

구로 구역 최경자 구로구 가리봉동 25-12
 을지2구역 유은숙 중구 주교동 청계사가 다 55호
 효자 구역 장상구 종로구 옥인동 47-280
 가회 구역 문명희 종로구 삼청동 125-1
 초동 구역 이영주 중구 을지로 2가 146
 신촌 구역 김미영 서대문구 북아현동 236-17 6/5
 중부 구역 김병욱 중구 을지 5가 274-15
 을지2 구역 오영숙 중구 중교동 208
 중부 구역 김상균 중구 을지 5가 272-7 우성빌딩 2층
 북가좌구역 배가문 은평구 수색동 205-1177 14/2
 북가좌구역 이흥기 은평구 수색동 205-1177 14/2
 명륜 구역 이근호 종로구 명륜동 2가 한남제인혜화슈퍼
 동교 구역 이종숙 마포구 서교동 340-25 15/3
 동교 구역 김봉례 마포구 동교동 197-37
 구로 구역 엄덕례 구로구 구로 5동 423-17 21/6
 신촌 구역 김미영 서대문구 북아현동 236-17 6/5
 화곡3 구역 김태희 강서구 신정동 16-74
 화곡3 구역 김은주 강서구 화곡 2동 882-39 4/5
 남가좌구역 장석주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42 19/2

서대1 구역 박연옥 서대문구 합동동 12 24/1
 오류 구역 강봉순 구로구 개봉동 120-5 13/2

* 축하합니다(9월중 결혼)

- 이용재군(김숙자 집사 아들)과 손명민양 8월12시 본 교회당에서
- 배선헌양(전정숙 권사딸) 8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영환군(김한울장로 조동숙집사 아들) 17일 오후1시 본교회당에서
- 양송숙양(압구정구역) 26일 오후 2시 정동교회당에서
- 김영애양(제이성가대원) 27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남기춘군과 이인옥양(제일성가대원) 10월 1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남용철군(남은균씨 황성례집사 아들)과 김태현양(공향구역) 3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정용관군(박옥동씨 아들) 3일 오후 1시 이화예식장
- 감기옥양(강병록 고임생집사 딸) 3일 오후 4시30분 엠버서더호텔에서

□ 권찰수첩 □

가정 심방에 대한 재 인식(2)

3. 심방하는 자나 심방을 받는 자가 신령한 분위기를 이룩하자.

이 신령한 분위기 조성은 신앙 안에서만 이룩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고 믿음으로 성도를 대할때 거기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참으로 진지한 대화가 오고가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피로왔던 마음이 위로와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아픈 마음이 싸매어집니다.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베다니 동리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주님과 나사로의 누나와 의 대화 장면이나 사마리아 여인과 샘 곁에서 예수님의 대화 장면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거룩하고 신령한 분위기, 마음이 오고가는 분위기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분위기가 조성 되었을때 나사로 가정에는 부활의 축복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에는 새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값있는 삶을 영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심방은 이렇게 신령한 분위기를 조

성하는 참된 심방이 되어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4. 심방을 받는 자나 심방을 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내다 보라.

심방하는 자나 심방을 받는 자의 자세가 올바로 되었을때 거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심방하는 자는 주 예수님을 앞에 내세우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은 물론이며 심방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일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화하기를 힘쓸 터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의 사자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을때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믿고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며 놓치지 아니하려고 수고할때 거기에서 주님 제일로 사랑하여 죽으나사나 주님만 위해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의로운 생활, 신실한 생활, 충성된 생활을 할 것이며,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추계 성례식 마쳐

교회는 지난 10월 8~12일 추계성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롬 14:7,8)란 주제하에 가진 성례식은 8,9일 문답, 10일 세례식, 12일 성찬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졌는데 학습, 세례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장년새신자 부에서 수시로 학습문답과 세례를 베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도 각종 문답의 서약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남	여	계
학습	53	91	144
세례	75	123	198
유세	37	25	62
입교	7	6	12
개종	3	2	5
계	3	247	421

허준 목사 사임

그동안 구역집방을 담당하던 허준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교회를 사직했다.

새로 목사 세 분

지난 10월 13, 14일 양일간 한민교회당에서 열린 수도노회에서 본 교회에서 김석원, 남성호, 유재일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김영희, 조준상, 박동실, 최봉호전도사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12명의 목사, 4명의 강도사가 수고하시게 된다.

교사 단기훈련 실시

10월22-25일까지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22-25일까지 4일간 교사 단기훈련을 가졌다. 주일학교 15부의 450여

명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가진 금번 수련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하에 신성종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8시간(매일 2시간씩)에 걸쳐 들었다.

1981년 주교사업계획

교육위원회는 1981년도 주교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끝내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각부에 서식으로 통보하여 각부의 1981년 사업계획, 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수정하고 있다. 이에 검토 수정된 것은 다시 해당부서로 회송, 피차 상의하여 절충하고 이를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 본회의에 상정 확정하게 된다.

새성전 건축관계로 모든 면에서 건축예산이 불가피한 교육위원회 및 주교 각부의 예산은 원 정도로 예상된다.

부흥사경회 계속

기도원에서는 매 격주로 갖는 부흥사경회를 11월중에는 11월 10~14일, 24~28일에 걸쳐 2회 갖는다. 이 부흥사경회는 기도원 지도 한영철목사가 담당, 낮에는 성경강해, 저녁에는 부흥회로 진행되는데 이 부흥사경회 기간 중 순서 및 안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도원의 버스는 동아장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충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 타고 대항령리에서 하차하면 된다.

장학금 지급

교회는 총회신학대학 신학부(연구원, 연수원)에 재학중인 본

교회 시무 전도사들에게 1980년 2학기 장학금을 각각 지급했다.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이양우, 안석렬, 김경진, 성주진, 한정남, 정금숙, 김양래, 김정훈, 김장근, 김성주, 정은표, 정관호, 황명길, 오진숙, 유희섭 장영자(이상 17명)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성가부)

가. 임명

제 1 성가대	김영희	소프라노
여성성가대	이영옥	소프라노
여성성가대	정옥영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김순영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임혜영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권현숙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한 복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원지희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노인순	엘 토
제 3 성가대	김동언	베이스
제 3 성가대	권홍렬	베이스
제 3 성가대	김의석	베이스
제 3 성가대	박종선	베이스

나. 퇴임

제 1 성가대	김창일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이춘래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박두현	테너
제 1 성가대	원웅철	베이스
제 3 성가대	이재실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신지은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조순환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최현숙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김숙자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이은희	엘토
제 3 성가대	정정희	엘토
제 3 성가대	조영숙	엘토
제 3 성가대	강구용	테너
제 3 성가대	원세연	테너
제 3 성가대	김원일	베이스
제 3 성가대	전영식	베이스
제 3 성가대	조정형	베이스
제 3 성가대	주영철	베이스

2. 교육위원회(주일학교)

가. 임명

초등부 박용기(남) 정교사
 중등부 유국현(남) 정교사
 고등부 김영숙(여) 임시교사
 선교부 임정우(남) 정교사

나. 퇴임

영아부 김종순(여)
 초등부 이춘희(여)
 초등부 양승희(여)
 중등부 김정복(남)
 산교부 김대호(남)
 선교부 김명숙(여)

토막소식

*...제 1 여전도회는 군목 1 명을
 추가 보조기로 했다.

*...제 2 여전도회는 지교회인 부
 현교회의 건축 보조금을 지급키
 로 했다.

*...산업전도회는 8월중 직장 10
 개소에 290여명과 함께 직장예배
 를 인도하며 전도하는 기회를 가
 졌다.

*...어린이새신자부는 11월26일
 교사월례철야기도회를 영아부실
 에서 갖는다(강사, 안석렬전도사)

*...영아부는 11월 2 일 수료생
 기념촬영, 14일 교사월례기도회,
 25일에는 수료생 학부모 좌담회
 를 가질 예정이다.

*...유치부는 지난 9월 28일 유
 치교실에서 반별 찬송가부르기대
 회를 가졌고, 11월 9일에는 수료
 생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다.

*...유년부는 11월 9 일 교사특강
 을 이양우전도사를 강사로, 또한
 자체 사무검열을 실시하며 23일
 에는 교회부근으로 교사, 학생이
 노방전도를 나갈 계획이다.

*...초등부는 11월 2 일 학부모초
 청좌담회를 가지며 9일에는 수
 료생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다.

*...중등부는 9월중 학생대심방

을 마쳤고 11월23일에는 최길수
 선생 담담으로 연구수업을 가질
 계획이다.

*...고등부는 11월23일 학습평가
 회를 가지며 11월 2 일에는 면려
 회 정기총회를 가지고 11월23일
 에는 성극발표회를 가질 예정이
 다.

*...청년부는 지난 9월21일 면
 려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노
 경모, 부회장에 박혜숙을 선출,
 11월 8 일에는 교회내외에 대청소
 를 실시하며 23일에는 「기독교청
 년의 결혼관」이란 주제로 발제토의
 를 갖는다.

*...장년새신자부는 11월23일 학
 생신앙 간증회를 새신자부실에서
 가진다.

*...노년부는 11월16일 노년부실
 에서 김희보목사를 강사로 모시
 고 「노인과 죽음」이란 제목하에
 특강을 갖는다.

*...산업전도교육부는 11월 16일
 찬송가 바로 부르기대회를 26일
 에는 장정일목사를 강사로 모시
 고 「목회자가 본 산업전도」란 제
 하의 특강을 16일에는 면려회 주관
 으로 교아원(혜신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선교부는 11월23일 새성전 건
 축현장에서 선교헌신기도회를 갖
 는다.

*...새가정부 11월 2 일 학생 신
 앙간증을 갖고 11월에 신약의 가
 정윤리, 가족관계(가족갈등), 아
 동정신건강등의 강의를 가진다.

각 종 통 계

1980. 10. 5. (매월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배	주일 낮	I 부	219	414	633	총세대수 3,816	
		II 부	403	1,009	1,412		
		III 부	411	866	1,277		
		IV 부	223	548	771		
		계	1,256	2,837	4,093		
주 일	저 녀	293	527	820	신 급	교인 총수	남 3,315
	삼 일	143	340	483		여	5,059
학 교	어린이새신자부	36	36	72	교 인	계	8,374
		영 아 부	149	121		남	1,809
		유 치 부	151	197		여	3,352
		유 년 부	211	223		계	5,161
		초 등 부	220	212		남	500
	중 등 부	167	155	322	교 인	여	338
		고 등 부	147	124		계	838
		대 학 부	60	75		남	262
		청 년 부	69	104		여	402
		장년새신자부	60	139		계	664
	장 년 부	25	272	297	원 입	남	744
		노 년 부	35	113		여	967
		산 업 교 육 부	35	90		계	1,711
		선 교 부	48	72			
		새 가 정 부	16	21			
	합 계	3,121	5,618	8,739			

11월의 행사

11월 2일 정기제직회, 재정위원회 정기회의, 산업전도회월례회, 월간총현 11월호 발간
 7일 전체철야기도회, 구역예배
 9일 : 산업전도교육부 헌신예배, 남전도회월례회, 권사회 월례회.
 12일 여전도회임원철야기도회.
 16일 추수감사주일, 재정위원회정기회의.
 19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21일 구역예배.
 23일 남전도회 헌신예배, 구역권찰회, 교육위원회월례회, 전도위원회월례회.
 30일 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12월 1일 건축위원회 월례회
 2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어느덧 11월호, 1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11월호를 마치게 되니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매번 보다 잘해보자고 다짐했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 죄송하기 짝이 없다.

이번 11월호로 칼빈의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하여」를 마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번역에 힘써준 오태용형제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어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깊이 되새겨야 할 귀한 글들이다. 그동안 여러면으로 격려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11월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감사절 특집으로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감사

할 것인가」를 다루어 보았다. 매년 맞는 감사절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부터 우려 나오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보고 싶었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로 맞자.

*... 복음성가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복음성가의 의미와 그 유래 등을 밝히 안다면 한결 의미가 달라지며 그 사용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성재장로님의 글을 실는다. 지도자와 평신도 모두가 한번쯤을 읽고 찬송과 예배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했으면 싶다.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복음성가 그 자체를 논하기보다 그 사용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이란 점이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월간총현

11월호

제8권제10호

통권 제82호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조현명

주 간 / 윤형철

편집부장 / 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11월 2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 · 3408

능력있는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문 / 능력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싶는데 그 비결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시 90:10) 하셨는데 그 걸음도 풀과 꽃이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렘전 1:24) 이처럼 짧고 덧없는 시간들을 또한 험란한 세상, 육신, 정욕, 마귀와의 대치하는 갈등 속에서의 승리를 위해 더우기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사역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좀더 값있고 보람있게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제시해 본다.

1. 능력의 근원(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시편 62:11은 “전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며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력있는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일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능력있는 신앙 생활과 봉사를 원한다면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①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게 되며(행 2:37)

②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중생의 기쁨을 체험하여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며(렘전 1:23, 약 1:18, 고전 3:6)

③ 믿음이 생기게 될 뿐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생명을 공급해 주며(롬 10:17, 뱀전 2:2).

④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므로(시 119:98) 험난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며

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성도로 이끌어주는 힘을 공급해 주며(딤후 3:17)

⑥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며(요일 5:13)

⑦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화평과 기쁨을 제공해 주며(시 85:8, 렘 15:16, 요 15:11)

⑧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공급해 준다.(마 4:4, 7:10, 시 119:11)

그러므로 육신의 건강을 위해 영양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마 4:4)을 힘써 먹음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신앙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2. 능력의 소유는 기도로부터 온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는데(시 62:11) 이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 들이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뿐이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마 7:7~11) 야고보 4:2에는 “너희가 얻지 못한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사야 40:31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것이며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능력있는 삶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바쁘면 바쁠수록 힘든 일이면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할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삶은 힘있고 보람있는 성공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김 창 근 목사 (장년 새신자부 지도)

실로
암
못
가
어
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편 중에서〉